

기존 동원기회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서쪽으로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그대를 크게 서비스하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이자가 크면 모르면 바로 내리는 빅만평생통장
●고소득자, 주부, 직장, 정년퇴직,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용량 저축 상품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태형 / 발행인: 김관남 / 편집인: 김공남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2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금주의 법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조상하는 사람은 없다 <종아함>

법회 안내

- 청주시 (02)816-1290
- 자살예방법회 월요일 오전10시 수요일전법회 수요일 오후7시
- 하양법회 월요일 오후2시 한문교실 월~금 오후4시
- 봉천사 (02)392-3007-8
- 반어법회 월요일 19시(음)오전10시 관음법회 월요일 29시(음)오전10시 창선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 경기도와 장안사(0344)63-1954
- 가평법회 월요일 첫째 일 오전11시 장안법회 월요일 15시(음) 오전11시 안양법회 월요일 19시(음) 오전11시
- 보문정사포교원 (032)512-7578
- 종교연합회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신도·청년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청주 동화사 (0431)276-0108
- 천안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8시 고등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중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30분)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법화산림법회 안내

법화경은 학구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보살이 되어 부처님의 이상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불자가 되라고 합니다.

- 법사: 현해 관스님 (월경사 주지)
- 시간: 불기 2539년 6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 장소: 본 연구원 법당
- 문의: TEL:(02)736-6002 FAX:(02)736-6205

한국불교발원연구원

대구·청주에 佛放지국 설립인가

김대통령, 지난 19일 월주스님에 통보...내년말 첫 전파

대구와 청주지역에 불교방송 지국의 설치에 정부로부터 인가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19일 아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에게 전화를 통해 "대구와 청주지역에 불교방송 지국설립을 허가토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대통령은 월주스님에게 "어느 지역의 허가를 원하느냐"고 질문했으며 월주스님은 "대구, 대전, 청주, 춘천 등 최소한 4곳은 허가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4곳은 우리가 있는 듯 하다"며 "우선적으로 대구와 청주지역을 허가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김대통령의 이날 2개 지방국 추가허가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던 추가허가에 대한 교계의 요구와 공익사상 이행, 행정재신위원회의 보고사항 등과 관련된 조치로 보인다.

<본지 25호 참조>
김대통령과 월주스님의 약속에 따라 정부측과 조계종,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대구와 청주지역 불교방송 지국 설립과 관련한 실무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방송의 경우 이미 추가인가에 대비 지역 승가와 재가승

과 지국설립에 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대구·청주지역의 지국설립은 추진이 구성과 실질적인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빠른 내년말에는 전파를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청주지역에서도 지국설립 추진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전망이다.

교계는 이와 함께 대전, 전주, 춘천, 청원, 제주, 강원도 등에도 불교방송 설치허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임연태·김원우 기자)

김태호사장 사표 수리 직무대행 강한필전무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종하)는 지난 11일 15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김태호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태호사장은 지난달 28일 불교방송사채와 관련된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사장은 지난 13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한편 이사회는 김사장의 사퇴와 관련 강한필 전무를 사장 직무대리로 선임했다. 또 이사회는 영담스님(부천석왕사 주지)을 새 이사로 영입했다.



부처님과 만나는 길

96 서울국제도서전이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개최돼, 교계는 50여 출판사에서 1천여종의 불서를 전시 관대했다. 지난 17일 개막식에 참석한 김영삼대통령은 불서전시장에 둘러 (나랏대와 행인)(동행 지음)을 구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12면). <사진=박재원 기자>

초심자 입문서 발간 계획

조계종 편찬위 구성 내년 2월 보급

불교초심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도 입문서가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각스님)은 오계를 수지하기 전의

초심자 신도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알기쉬운 입문서를 제작하기로 하고 기획 및 편찬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지나기 쉬운 관령으로 3백쪽

분량으로 나올 입문서는 오는 6월 초 편찬위원회를 구성, 세미나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원고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전국에 보급될 예정이다.

조계종단차원에서는 최초로 발간되는 입문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기초교리서와는 달리 기초교리뿐 아니라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한국불교의 역할 △현대사회와 미래에 있어 불교인의 역할 △불교의 건강성 △사찰 예배 △사찰구조 알기 등 불교를 처음 접한 신도와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킬수 있고, 종단의 참여자들의 기초자질을 갖추는 내용으로 꾸며진다. 포교원은 삼화·사진·만화등도 곁들여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입문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스인기 밸런스 김애씨가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에 동참했다. 신심돈화기로 소문난 김씨는 "꼭 필요한 불자의 자량심기운동"이라며 차량과 자택 현관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불자가정 전국 확산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 부착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부처님 오신날 전국의 불자가정에 5만장이 부착된 이후 본사에 계속 주문이 쇄도, 18일 현재까지 7만5천여장의 주문이 접수됐습니다. 본사는 주문서의 요구에 따라 1천대 이상을 주문할 경우 제작 실비만 보상으로 받고 사찰이나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앞면에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1천매이상 주문 사찰·단체명 인쇄

-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 △광명사(주지 운성) △약수암(주지 안병식)
 - △성불사(주지 가섭) △극제종합기계 생산부 차공구담 △강원관음사 △광주 신광사 △말양불교청년회(회장 정민국) △안산 불교신도회(이사 박정진) △천보사(주지 해인) △대한불자가정회(회장 진승남) △보은정사포교원(주지 도홍) △도사출판운주사(대표 임희관) △인천 봉안사 △경남 무릉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울산지원·대구지원 △인천 구양사 △경기 자산사포교당 △인양 해안사 △문경구 지장사 △경강사(주지 회일) △경남 송암사 △의정부 포교원 △충남 호국사 △충남 일심사 △천주사(주지 법산) △진각종 신지 삼인당 △해남 대홍사(주지 천운) △성북구 정혜선원 △용화사(주지 성범) △강원도 화무암 △충남 배성사 △진각종 법륜심인당 △경남 해남사 △경남 대원사 △경남 월광사 △충주 연화사 △울산 구척사 △전남 청년회 △용문선원(선원장 무정) △도봉구 성국사 △대전 영선사 △강원 월인포교당 △의정부 법원사 △경북 대성사 △성북구 청원암 △금천구 묘연사 △경북 악수암(주지 기성) △대구 화엄사 △도봉구 석굴암 △석남불교신도회 △도원구 영불사 △경기 원석사 △충남 민요암 △대한불교약사여래회 △진천 성림사 △경남 소림사 △경북 부기사 △마산 송암사 △강령영 △이명 공명 △승려사 △김광이 △이원용 △김희수 △최은주 △김영선 <무순·100매이상>

공동주최: 현대불교·한국불교종단협의회·대한불교진흥원

이번호부터 본문 활자 커졌습니다

독점 연재 **지현정사가 본 북한불교** 16면

목어

어느 고등학교 한문교사가 한 학부모로부터 존지봉투를 받았다. 그 선생님은 학생집을 찾아가 존지봉투를 돌려 주었다.

"에쓰시는 선생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담은 것이니 거둬 주십시오."

"제게 꼭 무얼 주시고 싶은 시면 책을 한번 사주십시오." 그 교사는 며칠후 친구를 찾아가 돈을 꾸어 달라고 했

다. 답답한 어려운 학생의 등 록금을 내주기 위해서였다.

"왜 그 존지 받아서 좋은 일에 쓰지 그랬나." "모르는 소리 그만둬. 그 봉투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 학생 얼굴에 시선이 자주

그 돈봉투 속에 들은 것

걸렸네..." 이런 기지도 있었다. 어느 의사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무뎠던 봉투가 전달됐다. 국구 사안을 했으나 전하는 쪽도 따무가내었

다. 기자는 봉투를 받아 그 의사네집 잔디 정원에 '화' 지표를 뿌렸다.

요즘 '돈 봉투' 얘기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린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대회장에서 있었던 추대 때문이

다. 깨끗한 선거를 기대하는 국민들 앞에 그 돈봉투는 오 불과 다름없었다. 주고 받는 마음은 순수해야 한다. 선거 관을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변히 속보이는

돈봉투가 아무 거품없이 오고 갔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한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 아무리 명예 눈이 어두워 돈세례를 퍼부어도 받는 사람이 없으면 공명 선거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목일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 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맑은 쾌락이 많은 고통이 따른다."



통일기원 만불보전 신축공사 투시도

통일기원 만불보전건립 기원법회 및 현근스님 법어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 출판기념회

우리 민족은 반세기에 걸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로, 통한의 세월을 인고하면서 통일의 날을 기원해 왔습니다. 더욱이 2천만 불자들은 조석으로 부처님전에 남북한의 조속한 통일 성취를 간절히 발원하면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리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에서 조선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겨레의 앞길을 밝혀온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해 '통일기원 만불보전'을 건립하여 그 공덕으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원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계사 주지 현근스님의 법어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갖고자 합니다. 부디 오셔서 한마음으로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을 위한 초석이 되어 주시고, 법어집 출판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39년 5월 31일

- 일시** 불기 2539년 5월 31일(수요일) 오후 6시
- 장소** 신라호텔 다이아스티움(전화:(02) 233-3131)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하차)
- 조계사**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45 (전화:(02)720-1390 / 팩스:(02)720-1391)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본사 조계사 통일기원 만불보전 건립 추진위원회
조계사 명예신도회장 서석재 회장
조계사 신도회장 홍성광명 합장